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 나주시,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발

이창동·송월동·다도면 지사협,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참여
취약계층 아동 물품 지원 및 반찬 나눔 등 나눔 활동 실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면서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나주시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나중근, 유설희)는 ‘아동정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취약계층 아동 3명의 가정을 방문해 컴퓨터 모니터 및 운동화 등 선물을 전달하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유설희 공동위원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관심을 갖는 돌봄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동정서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부기, 신영희)에서는 ‘사랑talk 양념톡톡’ 반찬지원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직접 반찬을 전달했다.

반찬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지사협위원들이 가정 방문을 통해 음식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안전망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신영희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끼니를 챙기기 힘든 가구에 반찬 전달을 통해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안부를 살펴 따뜻한 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도면에서는 궤우동(대표 이은영)의 후원으로 ‘에너지 동지 사업’ 추진을 통

해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다도면 도동1리, 도동2리, 압정1리, 덕림1리, 덕림2리 등 5개 마을의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스마트 센서등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야간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했다.

이은영 대표는 “지역 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사업에 동참했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홍철식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스마트 센서등 설치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장흥 안양면, ‘행복한 어린이날’ 응원 선물



장흥 안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일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안양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행복한 어린이날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특화사업이다.

올해는 안양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18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상품권은 아동들이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마련되어, 아동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준비되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협의체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수영 안양면장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아이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낀다. 지역사회가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성료

무안군 생활개선회 천연염색을 통해 자연과 공감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성남)은 최근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인과 함께 무안군 대표 특산품인 양파를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안군생활개선회 염색분과 회원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체험하

습으로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이용인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고 일상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용인들은 생활개선회원의 안내에 따라 염색 기법을 배우고, 직접 손으로 염

색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인들은 익숙치 않은 활동에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완성된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드러냈다.

박성남 관장은 “자연의 색을 체험하며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안군 지역사회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